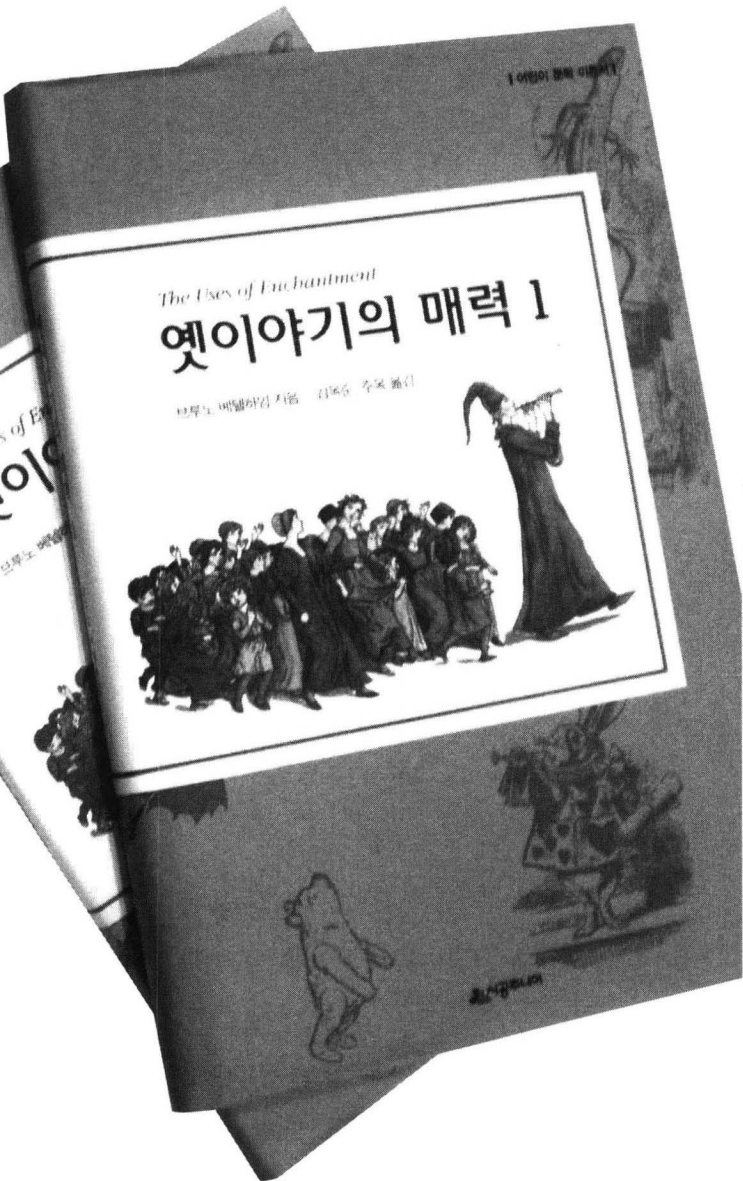


‘용기램프’의 충고는 자장가만큼 편안하더라

브루노 베텔하임의
《옛이야기의 매력》(전2권)



《옛이야기의 매력》(전2권)
브루노 베텔하임 지음 | 김옥순 외 옮김 | 시공주니어 | 각권 약 260쪽 내외 | 각권 값 9,500원

●이 글을 쓴 정여울은

‘미디어 헌터’로 《문학동네》 《한국문학》 《씨네21》 등 여러 잡지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20세기 초 몽유약식의 담론적 특성 연구》 《비정치성의 정치성, 비역사성의 역사성-이옥론》이 있으며, 공저로는 《이것은 애니메이션이 아니다》 《book+ing, 책과 만나다》 《국민 국가의 정치적 상상력》이 있다.

최근 방영중인 드라마 <비밀남녀>에서 여주인공 영지(한지혜)는 동화작가가 되는 것이 꿈이다. 그녀는 동화구연대회에서 자신이 직접 개작한 신데렐라 스토리를 특의양양하게 들려준다.

“신데렐라는 야심 가득한 여자였죠. 하루는 우물가에서 같은 동네 사는 하인 청년과 마주쳤지요.” ‘빈티’가 줄줄 흐르는 순박한 하인 청년의 프로포즈를 받은 신데렐라는 콧방귀를 뀌다. “헛! 너 같은 건 눈에 안 차. 난 말이지, 꿈이크단다.” 분홍빛 판타지를 기대했던 아이들의 눈에는 의심스런 기색이 일렁인다. 여차여차해서 왕자님이 애타게 찾던, 잃어버린 구두 한 짝의 주인공 신데렐라가 발각되고, 신데렐라는 기쁨에 넘쳐 가식적인 비명을 지른다. “아! 제 구두가 맞아요!” “왕자는 기뻐하며 신데렐라를 껴안았죠. 두 사람은 여행을 떠났어요. 한 달 동안 유럽을 돌면서 신데렐라는 평소 갖고 싶던 명품 백이며 구두를 잔뜩 선물받았죠.” 이 현대판 속물 신데렐라 버전에 아이들은 아연실색한다. 아이들을 동화구연대회에 데려온 엄마들도 ‘이건 내가 아는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닌데!’ 라는 표정들로 술렁인다.

이제 곧 왕자와 결혼식을 올릴 꿈에 부풀 신데렐라. 그녀의 달뜬 표정을 향해 왕자는 폭탄선언을 날린다. “신데렐라, 나 주말에 결혼한다.” 동화구연을 듣던 아이들은 소스라친다. 왕자가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하다니, 솜사탕 같이 달콤한 동화구연 들으러 왔다가 이게 웬 날벼락이람.

“신데렐라, 그동안 즐거웠고, 결혼해도, 뭐, 가끔씩은 만나자.” 이때 이웃 나라 공주가 나타나 신데렐라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장을 지른다. “결혼은 나랑 한다. 이 멍청아. 니 구두 짝퉁인 거, 왕자도 다 알고 있었어.” 어안이 병병한 신데렐라는 버림받은 여자의 고전적인 공식을 들먹인다. “왕자님, 날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하지만 내 신분에 너랑 결혼을 할 수는 없잖니. 돌아가 있어라. 공주 친정 가면 연락할게.” 아예 동화구연 자체를 보이콧하기로 결정한 관객들, 영지에게 바나나와 음료수 깡통을 냅다 던진다. “우리의 착하고 순수하고, 그리고 마침내 지고지순한 사랑에 끌인하는, 신데렐라를 돌려줘!” 망연자실 술잔을 기울이는 영지는 서글픈 주사를 부린다. “사람들이 현실을 외면하더라니까요. 발은 시궁창에 빠져 있어도 눈으론 저 멀리 무지개성을 보고 싶어하더라구요. 동화 속에선 착하게 살면 왕자도 만나고 멋진 궁전에서 살게 된다, 요파우 소리만 해대는데, 어디 현실에선 그러냐고요. 나! 착하게 살았다고. 가족 부양해가면서. 그런데 내가 어디 궁전에서 사냐구요.”

속물적인, 너무나 속물적인, 이 신데렐라 스토리는 몽클한 구석이 있다. 처녀가장 영지의 간난신고가 곳곳에 배어 있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버전의 잔혹동화는 '제발, 우리 아이는 세상이 웨하스와 초콜렛으로 이루어진 것이야. 행복하게 착각하며 살게 하소서' 라는 부모들의 염원을 깡그리 짓밟는다. 무사히, 제발 무사히, 내 아이가 이 경쟁과 살육으로 가득한 세상의 사다리를 건너길 바라는 우리의 부모들. 그들에게 동화구연이란 자고로 달고 쓰고 시금털털하고 비릿한 인생의 파노라마 속에서 기쁨과 희망의 페이지만을 짝둑 오려낸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부모의 품을 벗어나자마자 펼쳐지는 위험천만한 세상의 빛깔에 눈멀게 하는, 어여쁘게 윤색되고 첨삭된 순수버전의 동화만을 들려주는 일이 진정 아이들을 위한 길일까. 무지갯빛으로 출렁이는 동화의 세계 이면에는 어른들의 치부를 은폐하고 싶은 꿈꿉이가, 검은 욕망과 살의가 번득이는 세상의 맨얼굴을 숨기고픈 속내가, 내 아이에게 무진장 낙관적인 삶의 한견만을 보여주려는 위장의 제스처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옛이야기의 매력》을 쓴 브루노 베텔하임은 말한다. 동화의 진정한 가치는 아이들에게 세상 도처에 깔린 억압의 흔적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억압에 '친숙' 해지게 하는 것이라고. "정신분석은 인간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정신분석학의 창시자가 의도했던 바가 아니다. 정신분석은, 삶의 부정적 본질 때문에 사람들이 파멸하거나 도피하지 않고, 삶의 부정적 본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창시되었다."

프로이트의 처방에 의하면 인간은 자기를 압도하는 듯 보이는 것들에 용감하게 대항함으로써 자기의 존재 의미를 찾는 일에 성공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옛이야기가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전달하는 메시지다. 이 책은 오랫동안 전 세계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옛이야기들을 정신분석학적 시선으로 분석한다. 이 책의 타깃은 옛이야기의 수많은 교훈들이기보다는 삶을 대하는 어른들의 태도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른들의 가슴 속에 저마다 웅크리고 있는 상처받은 아이의 얼굴을 뒤늦게 불러내 대면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옛이야기가 어른들에게 선물하는 요술램프의 요정이다.

어릴 적부터 이야기책이라면 무조건 환장하던 나 역시, 〈잠자는 숲 속의 공주〉나 〈백설공주〉를 사랑했다. 하지만 동화는 어린 시절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었다. 아무 데서나 나타나는 삶의 부비트랩들 앞에서 생각나는 건 새 초롱한 공주의 러브스토리가 아니라 웬지 매력적인 악한과 어리숙한 소년이 등장하는 요절복통 모험담들이었다. 또는 사랑스런 늑동이 누이가 밤이면 여우로

변신해 가축을 잡아먹고 부모님마저 잡아먹자, 오빠들이 합심해 누이를 죽이는 〈여우누이〉와 같은 엽기적 스토리들은 이상하게도 더 치명적인 삶의 진실을 보듬고 있는 것 같았다.

베텔하임의 말처럼, 아이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장화 신은 고양이〉의 주인공은 속임수를 통해 성공하며, 〈재과 콩나무〉에서 잿은 거인의 보물을 훔친다. 이런 이야기들은 선과 악 사이의 선택은 중요하지 않으며, 보잘것없는 인물도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어린이들에게 심어준다. 자신이 너무나 하찮아서 아무 일도 못 해낼 거라고 두려워하는 어린이에게 착한 사람이 되겠다는 선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무엇보다도, 여전히 질푸른 멍처럼 가슴에 남아 있는 옛이야기들은 나를 둘러싼 악조건에 대해 투덜대지 않을 수 있는 여유와 용기를 선물해 주었다. 초등학교 시절 유난히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던 나는, 나보다 더 아프고 외로운 동화 속의 친구들과 함께 놀며 그들에게 속삭였다. 내가 힘 세지고 똑똑해져서, 너를 꼭 도와줄게, 혼자 울지마. 어머니는 지금도 내가 모범생이었다고 기억하시지만, 그것은 내 영악한 연기력이었을 뿐, 초등학교 시절 내 유일한 친구는 집안에 잔뜩 쌓인 소년 소녀 창작동화집들이었다.

"오늘날 어린이들은 더 이상 대가족 제도나 잘 화합된 공동체와 같은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양육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어린이들에게 옛이야기는 더욱 중요하다." "어린이들은 마치 이야기 속의 주인공처럼 자기도 낯선 세상 속으로 쫓겨났으며, 버림받고 어둠 속을 헤매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자기도 주인공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길로 인도될 것이고,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거라고 믿게 된다. 과거 어느 때보다 오늘날의 어린이들은, 고립되어 있으면서도 마침내 주변 세계와 의미심장하고 소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주인공의 이미지에서 안도감을 느낄 필요가 있다."

어린 시절, 엄마에게조차 말 못할 고민과 불안과 공포를 옛이야기 속에서 발견했던 나는, 비로소 엄마의 자장가를 듣지 않고서도 잠이 들 수 있었다. **한글**